

(Overweight)

자동차

GM과의 픽업트럭 협력, 올 것이 왔다

자동차 유지웅

jwyoo@daolfn.com

● GM과 픽업트럭 협력 가능성 보도: 올 것이 왔다

전일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GM과의 픽업트럭 공동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지난 9월에 현대차와 GM은 전 사업 영역에서 포괄적 협업 MOU를 체결했으며, 픽업트럭 공동개발은 여기서 한단계 구체화된 상태. 보도에 따르면 리배징 형태로 생산해 중남미를 주로 겨냥해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ICE/EV 파워트레인 타입은 미정

● 트럼프 2기 돌입, 현대차 입장에서는 GM과의 차량 공동개발은 큰 돌파구

GM과의 차량 공동개발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최근 트럼프 당선 전후 나타난 외산 브랜드 입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 먼저, 현재 미국의 Chicken-Tax 적용을 받고 있는 픽업트럭은 수입의 경우 약 25%의 관세가 부과대상. 따라서 현지 양산을 하게 될 경우 이를 피해갈 수 있고, Full-Size 픽업트럭 양산 및 개발경험이 없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GM과 공동 개발시 기회비용 측면에서 큰 이득을 보게 됨

● 현대차그룹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가 더 중요

금번 픽업트럭의 공동개발은 중남미 시장 겨냥을 위주로 할 경우, ICE 파워트레인일 가능성이 큼. 그러나 애초 MOU는 전 사업영역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포함하고 있어, 금번을 계기로 협업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 특히 엔진 및 변속기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현대모비스의 수혜가 가능하다는 판단

금번 협업사태를 계기로 현대차의 단순 픽업트럭 시장 진출 외에도, 현대차그룹의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 특히 GM 입장에서는 반대로 현대차그룹의 EV 전반에 걸친 생산체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배터리의 셀-모듈 영역에서만 협력사에 의존하고, 배터리팩 조립 및 시스템/최적화 단계는 직접 운영하고 있어 EV사업 자체가 대부분 적자상태. 반대로 현대차/기아의 경우 이미 전기차 생산/판매 마진이 미드싱글~하이싱글을 기록하고 있어, 밸류체인의 핵심인 현대모비스의 사업가치가 크게 돋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5.4%	HOLD : 14.6%	SELL : 0.0%
-------------	--------------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적정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 SUSPENDED: 기업가치 전망에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커진 경우, 분석 잠정적 중단. 목표가 미제시.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